

씨젠,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코로나 진단키트 덕에 웃었다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18억
영업익·당기순이익 600% 증가
2분기부터 코로나영향 본격화

씨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진단키트 수출 영향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분기에는 더 큰 실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씨젠은 13일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18억 원, 영업이익 398억원, 순이익 337억 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600% 가까이 증가하며 지난

2019년 연간 이익 규모(영업이익의 224억, 당기순이익의 267억)를 3개월 만에 초과했다.

씨젠의 매출은 전년도 연간 수준의 70% 수준을 이미 달성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연간 수준을 초과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올해 1분기는 코로나 비중을 제외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1분기 중 코로나 관련 비중은 매출의 35% 수준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인 코로나 관련 수출 급증 등에 따른 실적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는 이러한 이익 증가에 대해 낮은 원가 구조 속에서 매출액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폭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도 유사한 패턴의 이익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2분기에 다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은 이익률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진행 추이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는 씨젠의 높은 경쟁력을 시장에 증명하고 이를 실적과 주가에 반영해 나가면서 회사가 확실하게 레벨업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JW홀딩스 룩셈부르크·남아공에 항생제 수출

퀴놀론계 항생제, 호흡기에 효과
프리페넴주 수출물량 2배 추가공급

JW홀딩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표적인 긴급의약품인 항생제를 수출한다.

JW홀딩스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를 룩셈부르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긴급 수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룩셈부르크에 수출되는 제품은 제이더블유레보플록사신주로 호흡기와 부비강염 등에 효과가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다. 일반 주사제와 달리 레보플록사신이 생리식염수와 혼합돼 있어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사용되는 프리믹스처 수액이다.

이번 긴급의약품 공급은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오는 19일 수출 길에 오를 계획이다.

또 JW홀딩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거래선 오스텔 레버토리즈와 협업을 통해 남아공 정부에



JW 레보플록사신주

서 진행한 대규모 긴급 입찰에 공급권을 낙찰 받았다. 이를 통해 연간 계약한 프리페넴주 수출 물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프리페넴주는 JW중외제약이 2004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미페넴의 퍼스트 제네릭으로 폐렴, 복강 감염 등 중증 감염치료에 사용된다.

JW홀딩스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대표적인 긴급의약품인 항생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 맞춤형화장품으로 호주 시장 공략

‘래셔널 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사 보유 핵심 역량·노하우 공유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래셔널’ 대표 상품

아모레퍼시픽이 호주 럭셔리 스킨케어 전문 기업 ‘래셔널 그룹’과 지분 투자를 동반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오세아니아 시장에서의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솔루션 분야 리더십을 확보할 예정이다. 1992년 호주에서 설립된 래셔널 그룹은 단일 브랜드인 ‘래셔널’을 통해 피부 측정과 진단, 고객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에서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호주 전역에서 15개의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주요 병

의원, 브랜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한국, 영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신규 브랜드 런칭,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래셔널 그룹과 협력을 약속하고, 시장 개척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래셔널 그룹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안세홍 사장은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미래 성장을 위한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기업과 M&A 및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래셔널 그룹의 설립자이자 연구소장인 리처드 파커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지원으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기쁘게 생각한다.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세아니아 시장에 진출한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라네즈,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를 호주와 뉴질랜드에 안정적으로 런칭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폐암신약 ‘레이저티닙’ 뇌전이 환자에 효과



오는 29일 美임상종양학회서 발표
비소세포폐암, 전체 폐암의 80%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진행

유한양행은 개발 중인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이 뇌 전이를 동반하는 폐암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행사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을 상피세포성장인자(EG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의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비소세포폐암 중에서도 EG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는

동양인 환자의 40%, 서양인 환자의 15% 정도다.

연구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폐암이 뇌로 전이된 환자 64명에 레이저티닙을 투여한 결과, 뇌 안의 종양이 더 커지지 않았거나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90.6%에 달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약 24%는 첫 진단에서 뇌 전이가 발견된다. 폐암 치료를 하더라도 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전이 비율은 더 높아져 약 50%에 달한다.

폐암이 뇌로 암이 전이되면 인지 기능 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진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레이저티닙은 뇌 전이를 동반한 폐암 환자의 뇌 내 종양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만큼 경쟁력 있는 국산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랩스커버리 기반 신약개발 진행”

3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한미약품은 사노피의 권리 반환의 항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랩스커버리 기반의 다양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현재 30여개에 이르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중이며, 이 중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높여주는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기반의 다양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호중구 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는 작년말 미국 FDA에 시판허가를 신청해 올해 하반기쯤 출시가 예정돼 있다. 한미약품은 롤론티스의 국내 허가도 최근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또 그동안 비만치료제

로 개발해 온 ‘듀얼 아고니스트’의 경우, 약물 재창출을 통한 새로운 적응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혁신 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Glucagon/GIP/GLP-1 삼중작용제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단일 타겟 경구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전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1상 임상을 진행중인 ‘글루카곤 아날로그’는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선천성고인슐린증 희귀약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달 말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현재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바이오신약 중 FDA, EMA로부터 희귀약 지정을 받은 건수는 8건에 이른다.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이 파이프라인들 다수는 현재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협의중이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깔끔한 뒷맛 ‘우롱차’ 출시



광동제약이 기름진 음식에 깔끔하게 마시기 좋은 ‘광동 우롱차(샤진)’를 출시했다.

광동 우롱차는 우롱차의 유명 산지인 중국 복건성에서 재배한 철관음 품종을 블렌딩한 차음료이다.

중국의 명차 중 하나로 꼽히는 철관음 품종은 맛과 향이 감미롭고 고급스러우며 다른 우롱차 품종에 비해 더욱 구수하고 뒷맛이 깔끔하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우롱차 중에서 녹차, 홍차 등 다른 종류와 섞지 않고 우롱차만을 우려낸 차음료는 광동 우롱차가 처음이다.

/이세경 기자

1분기 매출 1306억... 코로나에도 ‘껍충’



간, 영업이익은 193억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71억원으로 30% 가량 급증했다.

일반의약품(OTC)은 물론, 전문의약품과 헬스케어사업부 등이 고른 성장을 나타냈다.

OTC 부문에서는 탈모약 판시탈과 치질 치료제인 치센, 센시아 등 주요 아이템이 꾸준히 성장했고, 헬스케어 부문은 마데카크림 시즌5 출시효과와 흡소핑과 온라인 부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ETC 부문에선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탄정과 피타론에프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경 기자